

# 고려시대 매병의 용례와 조형적 특징

김 태 은\*

- I. 머리말
- II.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본 매병의 용어와 용례
- III. 고려시대 매병의 기형과 문양
- IV. 고려시대 매병의 양식변천
- V. 맺음말

## I. 머리말

梅瓶은 11-15세기 고려·중국·일본에서 모두 애호되면서 각 국에서 제작, 사용되었던 대형의 용기이다. 고려의 청자매병은 특유의 조형으로 이미 당대에 중국·일본 등과 교류하면서, 현재까지 해외 여러 유적에서 다수의 예가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매병은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조선 초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는데, 긴 동체와 작은 입의 형태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세부에서는 양식적 차이를 보이며 여러 지역에서 제작되었다. 때문에 구체적인 양식적 고찰을 통한 고려매병의 특징과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작업은 고려청자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경기도자박물관 학예연구원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sup>1</sup> 그동안 축적된 국내외 발굴자료와 현전하는 유물을 포괄하여 고려시대 매병의 양식적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조형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매병의 용어와 용례에 관하여 새롭게 확인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념적 규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I.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본 매병의 용어와 용례

### 1. ‘梅瓶’ 관련 기록

매병이라는 기종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이른데 비해<sup>2</sup> 명칭이 문헌에서 확인되는 시기는清末로 알려졌다. 그동안 ‘梅瓶’에 관해서는 1924년 간행된 許之衡(1877-1935)의 『飲流齋說瓷』 說瓶罐 第7梅瓶條 기록을 근거로 형태와 용어의 기원을 유추해왔으니

매병의 입은 작고 목은 짧으며 어깨는 극히 풍만하고 넓으며, 동체로 갈수록 좁아들다가 저부에서 미세하고 풍만하게 꺾인다. 구경이 매우 작아 마치 매화의 여원 가지와 비슷하다고 하여 부른 것으로, 예부터 이름을 梅瓶이라 하였다. 송대 瓶은 우아하여 매병의 형식은 선호되었고, 원·명·청대 모두 제작하였다.

는 짙막한 기술이 그것이다.<sup>3</sup> 『飲流齋說瓷』보다 14년 이른 宣統2年(1910)에 간행된 江埔 寂園叟의

<sup>1</sup> 최건, 「高麗 鐵繪靑磁의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1); 同著,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傳統繼承과 中國陶磁文化의 受容에 關하여」, 『韓國磁器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1회 동원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국립중앙박물관, 1990); 同著, 「鐵畫靑磁의 特徵과 展開」,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靑磁 Ⅲ』(호림박물관, 1996); 肥塚良三, 「高麗の梅瓶」, 『高麗梅瓶展』(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85); 강순천, 「高麗時代 靑磁梅瓶의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同著, 「梅瓶의 用途와 形式에 關한 小考」, 『陶藝研究』 16(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1994); 김운정, 「고려말·조선초 官司銘梅瓶의 製作時期와 性格」, 『丹豪文化研究』 8-흥으로 빛은 우리 역사(용인대학교 교박물관, 2004); 이종민, 「고려시대 靑磁 梅瓶 연구」, 『講座美術史』 27(韓國美術史研究所, 2006); 한성옥, 「新安船出土 高麗靑瓷의 性格」,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박정민, 「14世紀前半 高麗象嵌靑瓷梅瓶의 새로운 變化」, 『美術史學』 21(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김태은, 「高麗時代 梅瓶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sup>2</sup> 매병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확실치 않다. 중국의 경우 630년의 기년을 갖는 唐 李壽石槨墓 조각장식에서 매병이 확인되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孙机, 「唐李壽石槨綉刻(侍女圖)」, 《樂舞圖》散記(上), 『文物』 1996-5(文物出版社, 1996), pp. 33-49.

『陶雅』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확인된다.<sup>4</sup> 『陶雅』에서는 매병 기형 외에도 “매병과 같이 세장하고”라고 묘사하거나<sup>5</sup> “기명을 논하는데 있어, 매병을 말하고”라 하여,<sup>6</sup> 이 시기에는 ‘매병’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飲流齋說瓷』 기록 중 주목되는 것은 ‘예부터 명칭을 매병이라고 하였다’는 구절이다. 기존에는 康熙帝의 명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집대성한 『佩文韻府』(1711)에 瓶에 관한 숙어가 128語 기재되어 있음에도 ‘매병’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시기 이전에는 ‘매병’이라는 용어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왔다.<sup>7</sup> 그러나 1716년에 완성된 『萬壽盛典初集』에는 여러 친족과 신하 등이 바친 진상품 중 ‘萬年梅瓶’, ‘宣窑梅瓶一座’, ‘宣窑填白梅瓶’, ‘宋磁梅瓶’ 등의 매병이 포함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sup>8</sup> 특히 ‘宋磁梅瓶’은 전세된 송대 매병 혹은 당시 제작된 송풍 매병으로 추정되어, 『萬壽盛典初集』에 기록된 ‘매병’은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매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萬壽盛典初集』보다 더 이른 시기의 기록에서도 매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宋 韓滉(1159-1224)의 시에서는 앞 구절 ‘蘭珮’의 대구로서,<sup>9</sup> 송 蛟峯方氏의 시에서는 뒷 구절 ‘茶鼎’의 대구로서 ‘매병’이 하나의 단어로 쓰였으며<sup>10</sup> 『宋詩鈔』<sup>11</sup>와 金~元代 인물인 陸文圭(1250-1334)의 시,<sup>12</sup> 清代 시집인 『御製詩集』에 실린 시<sup>13</sup> 등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萬壽盛典初集』 이전의 기록들에서 나타나는 ‘매병’이 오늘날과 같은 매병을 지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매병’이라는 용어 자체가 송대에 이미 등장한 것은 분명하며, 18세기 초에는 확실

3 許之衡, 『飲流齋說瓷』, 說瓶罐 第7 梅瓶條 “梅瓶口細而項短, 肩極寬博至脛稍狹, 折於足則微豐, 口徑之小僅與梅之瘦骨相稱, 故名梅瓶也 宋瓶雅好作此式, 元明暨清初歷代皆有斯製, …”; 同著, 葉詰民 譯註, 『飲流齋說瓷譯注』(紫禁城出版社, 2005), pp. 117-126.

4 寂園叟, 『陶雅』 卷上 陶雅11 “梅瓶, 小口寬肩, 長身短項, 足微斂而平底.”

5 同上書, 卷上 陶雅11 “蘆葦尊, 似梅瓶而瘦, 形如白蘆葦, …”

6 同上書, 卷上 陶雅26 “器皿之佳者……曰梅瓶, …”

7 肥塚良三, 앞의 논문, p. 2.

8 『萬壽盛典初集』 康熙56年武英殿刊本 卷54 恒親王福晉進 “…萬年梅瓶 永樂窑, …”; 同書, 卷55 和碩簡親王之子應封宗室臣雍乾恭進 “…宣窑梅瓶一座, …”; 同書, 卷5 禮部尚書臣赫碩色臣陳說侍郎臣二格臣王思軾臣馮忠臣胡作梅恭進 “…宣窑填白梅瓶, …”; 同書, 卷58 太僕寺卿臣阿錫鼎臣周道新恭進 “…宋磁梅瓶, …”

9 韓滉, 『澗泉集』 卷7 五言律詩 〈雪後如春〉,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蘭珮新輪綠, 梅瓶久薦紅, …”

10 蛟峯方氏, 『蛟峯文集』 卷8 附山房遺文 〈風潭精舍, 月夜偶成, 先生山房之號本此〉,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1999) “…石几梅瓶添水活, 地爐茶鼎煮泉新, …”

11 吳之振·呂留良·吳爾堯, 『宋詩鈔』 卷52 〈謝易子雲傳〉,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1999) “…近危竟似井梅瓶, …”

12 陸文圭, 『牆東類稿』 卷10 〈題索句圖〉,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1999) “…梅瓶無香, 茶鼎無煙, …”

13 『御製詩集』 四集 卷76 〈劉貫道積雪圖〉,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1999) “…艤舫高人步莎徑, 捲帷幽士守梅瓶, …”

히 오늘날의 매병과 같은 의미로서 정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고려시대 문헌자료에 나타난 飲用器와 매병

우리나라에서 매병은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고려시대 문헌에 매병이라는 용어가 기록된 예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청자매병의 명문을 보면 ‘司醞署’·‘司膳’·‘德泉’과 같이 왕실음식과 술을 관장하던 관청명과 왕실재정 관련 기구명 등이 확인되므로 술 등을 담았던 飲用器였던 것은 분명하다(도 1).<sup>14</sup> 이는 중국의 경우도 遼宋金 매병의 술 관련 명문과<sup>15</sup> 宣化遼墓<sup>16</sup>·白沙宋墓<sup>17</sup>·溫縣宋墓(도 2)<sup>18</sup> 등의 분묘벽화,<sup>19</sup> 명대 분묘에서 출토된 술이 담겨진 매병<sup>20</sup>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매병의 용어 및 용례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문헌에 기록된 음용기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필요하다.



도 1 <청자상감 乙酉司醞署 명류로문매병>, 1345년, 높이 30.4cm, 입지름 6.3cm, 밑지름 11.8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 <庖廚圖>(부분 및 세부), 송, 雕磚, 중국 河南省 溫縣 前東南王村宋墓

<sup>14</sup> 김윤정, 앞의 논문, pp. 146-149.

<sup>15</sup> 김태은, 앞의 논문, pp. 14, 16.

<sup>16</sup> 宣化遼墓 壁畫에서는 여러 형태의 매병이 다양한 형식으로 그려졌다. 河北省文物研究所 編, 『宣化遼墓壁畫』(文物出版社, 2001).

<sup>17</sup> 白沙宋墓의 경우 매병을 안고 있는 사람 옆에 ‘畫上崔大郎酒’라는 글이 있어, 매병이 酒器였음이 확인된다. 陈远琪, 『梅瓶隨葬初探—兼談梅瓶用途』, 『中國古陶瓷研究』6(紫禁城出版社, 2000), pp. 86-87.

<sup>18</sup> 河南省 溫縣에 위치한 前東南王村宋墓에서는 한 여인이 자주요계 요장에서 만들어진 듯한 매병을 기울여 액체를 소형 기물에 덜고 있다. 廖奔, 『宋金元做木結構磚雕墓及其東舞裝飾』, 『文物』2000-5(文物出版社, 2000), p. 84.

<sup>19</sup> 이밖에 중국의 많은 회화자료에서 음용기로 활용되는 매병을 볼 수 있다. 김태은, 앞의 논문, pp. 22-24, <표 1> 참고.

<sup>20</sup> 陈远琪, 앞의 논문, pp. 86-87.

고려시대 기명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壺·瓶類 및 盞과 같은 음용기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는 당시 실생활에서 차와 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전세품 및 생산유적에서 확인되는 음용기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sup>21</sup> 특히,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등의 일상생활 및 연회, 의례에서 사용한 음용기에 관한 다수의 기록들을 통해, 樽·尊·罍·壺·瓶·缸·甕·甕·瓮·槽·鳴夷子·榼·罄 등 다양한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 樽(尊/罇)<sup>22</sup>은 고려시대 자료에서 다수 확인되며 다양한 재질 및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高麗史』에는 銀尊·銀大樽·金鏤銀尊·半鏤銀尊 등이 나타나는데, 이 기물들은 대부분 元 황실에 바치는 예물이며 최고급 재질과 최상의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이들과 함께 바친 다른 기종들도 대부분 음용기에 해당하여 원 황실에서 고려의 음용기를 선호하였음을 추측케 한다.<sup>23</sup>

준은 고려 왕실뿐 아니라 귀족과 일반민들도 사용하였다. 李奎報(1168-1241)의 많은 글과 시에서 綠樽·金樽/金罇·玉樽·白玉樽·瓊樽·淸樽 등 다양한 종류의 준이 확인된다.<sup>24</sup> 시에 등장하는 준은 대체로 고급재질로 제작된 예가 많았으며,<sup>25</sup> 좋은 술을 담는 용기로 표현되었다.<sup>26</sup> 준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등장하지만, 특히 사신의 영접이나<sup>27</sup> 연회에서 묘사되는 것이 특징이다.<sup>28</sup> 또한, 준은 壺·瓶보다 크고<sup>29</sup> 甕·槽보다는 작은 기물로,<sup>30</sup> 지인들이 내방할 때 술을 담아 오는 휴

21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혜안, 2006), pp. 85-105.

22 樽과 尊, 罇은 글자는 다르나 음과 뜻이 동일하여 고려시대에는 혼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주 37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23 『高麗史』世家22 高宗7年(1220) 3月 “...以銀尊銀盤銀盃各一銀盞二...石遺于哥下以酬其功...”; 『高麗史』世家31 忠烈王 22年(1296) 11月 “王與公主, 謁帝, 獻方物金瓶金鐘二事, 鏤銀壺銀湯瓶各一事, 銀盞一副, 銀胡瓶銀大樽各一事, 半鏤銀胡瓶二事, 銀大鍾一事, 銀盃五十事...”; 『高麗史』世家31 忠烈王 20年(1294) 4月 “...王與公主, 獻金盞銀鏤葵花盞各一副, 金瓶金鏤銀尊壺湯瓶酒瓶各一事, 半鏤銀尊胡瓶各一事, 銀盃八十一事...”

24 이규보는 많은 수의 시와 글을 남겼는데, 술을 애호하여 그의 글에는 끊임없이 술이 등장한다. 『東國李相國集』에는 술과 함께 음용기도 다수 표현되므로 『高麗史』보다 풍부한 고려시대 기명의 종류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5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全集 卷5 古律詩〈全履之家, 大醉口唱, 使履之走筆書壁〉“...明月爲我炤金樽”; 同書, 全集 卷6 古律詩〈李進士大成邀飲, 席上走筆贈之〉“...白玉樽前爛醉身...”

26 同上書, 全集 卷2 古律詩〈奇尙書退食齋八詠 并引〉“...盃盤狼藉, 酌瓊樽之九醞...”

27 同上書, 全集 卷32 狀全州所製〈北朝客使迎接修製 翰林行〉二度送酒菓狀 “...樽醪雖薄, 庶資閑燕之歡, 時復中之, 固所望也”; 同書, 全集 卷10 古律詩〈二月, 復指扶寧郡, 馬上讀小畜詩, 用茶園詩韻, 記所見〉“...邑宰出開樽...”

28 同上書, 全集 卷6 古律詩〈縣宰邀宴江樓, 明日奉贈〉“...玉樽未倒青山暮...”

29 同上書, 全集 卷19 銘〈漆壺銘〉“...惟樽惟罍, 日甕日甗, 其在于邇, 惟我所麾, 其適于遠, 偃蹇莫隨, 憐哉是壺, 不我敢離...”

30 『東國李相國集』에서 甕과 槽는 술을 빚거나 집에 저장할 때 사용하였던 대형 기물을 지칭할 때 주로 언급되었다. 同上書, 全集 卷12 古律詩〈明日, 以長篇贈徐學錄陵 并序〉“...待我甕頭芳酒熟...”; 同書, 後集 卷1 古律詩〈聞汁酒聲〉“...甕裏醞醞厭日甕...”; 同書, 全集 卷6 古律詩〈十月二日, 自江南入洛有作, 示諸友生〉“...我家新釀方壓槽...”

대용기로도 자주 등장한다.<sup>31</sup> 자료 중 가장 주목되는 기록은 “綠樽을 北海에 기울이니, 젊은 날 관직을 생각하네”라는 구절로, 청자준이 언급되었다.<sup>32</sup>

청자준이 언급된 또 다른 기록으로는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高麗圖經』)이 있다. 器皿3 陶尊에서 “酒尊의 모양은 참외 같은데, 작은 뚜껑이 있으며 기면에는 연꽃이나 엮드린 오리 문양이 있다 …… 酒尊만은 다른 기물과는 다르기에 특별히 그린다”라 기술하였다.<sup>33</sup> 『高麗圖經』에서는 이 외에 瓦尊·藤尊·芙蓉尊도 등장한다.<sup>34</sup>

이상 기록으로 보면, 樽의 용례와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高麗圖經』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조형을 가진 고려시대 청자기명으로는 매병이 가장 유력하다. 『高麗圖經』 陶尊에서 묘사된 기물은 음각 혹은 양각기법으로 蓮花紋 또는 水禽紋을 시문한 瓜形매병을 지칭한다고 여겨지며, 등준은 宣化遼墓 벽화에 나타난 풀 혹은 나뭇가지를 감은 매병과 유사할 것이라 생각된다.<sup>35</sup>

2010년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고 있는 태안 마도 2호선에서 원형의 매병 2점이 목간 2점과 같이 출토되었다. 이 목간에는 “중방 도장교 오문부 닥에 올림. 꿀을 樽에 담아 봉함”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어,<sup>36</sup> 실제 고려시대에 매병을 ‘준’이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라 하겠다. 또한 준에 꿀을 담았다하여, 고려시대에 매병이 주기 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31 同上書, 後集 卷5 古律詩 〈復用前所寄詩韻, 寄其僧統 并序〉 “…一樽相訪叙睽離…”; 同書, 後集 卷10 古律詩 〈五月日, 文祭酒廷軾携酒殷來訪, 俄有玄源禪師, 又携酒果來訪, 各以詩謝之〉 “…一樽澄醕綠涵涵…”

32 同上書, 後集 卷8 古律詩 〈復和〉 “…綠樽傾北海, 紅臉憶東牆…”

33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2 器皿3 陶尊 “…酒尊之狀如瓜, 上有小蓋, 面爲荷花伏鴨之形…以酒尊異於他器, 特著之.”

34 同上書, 卷32 器皿3 瓦尊 “…王之所飲日良醞, 左庫清法酒, 亦有二品, 貯以瓦尊, 而以黃絹封之…”; 同書, 卷32 器皿3 藤尊 “藤尊乃山島州郡所饋也, 中亦瓦尊, 外以藤周纏之, 舟中嶼帆, 相擊不損, 上有封緘, 各以州郡印文記之”; 同書, 卷30 器皿1 芙蓉尊 “酒尊之形, 上有蓋, 如芙蓉花之方苞也, 間金塗飾, 長頸廣腹 高二尺, 量容一斗二升.”

35 河北省文物研究所編, 앞의 책, pp. 24-122 도판 1, 41 참조.

36 임경희, 「2010년 마도2호선 목간 설명자료」(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重房都將校吳文富宅上精密盛樽封”, “重房都將校吳文富宅上精密盛樽封”

37 『高麗史』 志13-17 禮吉禮의 기록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樽’과 ‘尊’이 함께 등장하여 일견 서로 다른 기물을 지칭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례를 살펴보면 ‘樽’과 ‘尊’은 同字로 이해된다. 그 한 예로 길례에서 준·뢰 등의 제기를 놓는 자리를 준소라 하였는데, 『高麗史』에서는 이곳을 ‘樽所’ 혹은 ‘尊所’라 혼용하여 썼다. 『高麗史』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고려시대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고려시대에는 이와 같이 樽과 尊의 구분 없이 혼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준이 여러 번 등장하는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서는 樽만 쓰였으며 尊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가장 풍부한 기명 관련 용어를 활용한 이규보가 ‘尊’이라는 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해하기보다는 樽과 동어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준이 주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또 다른 예를 보자. 『高麗史』志의 吉禮에 언급된 여러 제기 중 樽(尊)류에는 대부분 술을 담았으나 일부는 물을 담아 의례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또한, 『高麗史』에는 준이 음용기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인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毅宗21年(1167) 4월에 열린 연회에는 樽花가 등장하여,<sup>38</sup> 왕실연회에서 준에 꽃을 꽂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자료 외에도 元代의 〈第四嘑禮嘑尊者〉에서 매병에 꽃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sup>39</sup> 明代 이후의 회화자료에서도 꽃을 꽂은 매병이 다수 확인된다.<sup>40</sup>

이상으로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려시대에는 매병을 ‘樽(尊)’이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매병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술 등을 담아 사용된 음용기로 여겨진다. 청자와 도기를 포함하여 금속이나 옥 등 여러 재질로 제작된 고급기명으로서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되었으며, 원 황실에 대한 공물에 포함되거나 왕실연회와 의례, 사신접대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례용 제기 혹은 화병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고려시대 매병은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고려시대 매병의 기형과 문양

#### 1. 형태의 특징과 유형

매병은 고려청자에서 보기 드문 대형기물의 하나로, 작은 입과 벌어진 어깨, 세장한 하부 등의 형태적 특징은 매병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유물들 간의 양식적 차이가 제작 시기에 따른 변화를 드러내므로, 유형을 분류하고 형식적 차이를 파악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sup>41</sup>

38 『高麗史』世家18 毅宗21年 4月 “...戊寅以河清節幸萬春亭, 宴幸樞侍臣於延興殿, 大樂署管絃坊爭備綵棚樽花獻山桃拋毬樂等聲伎之戲...”

39 國立故宮博物院 소장(廖寶秀, 『梅瓶略史』, 『月刊故宮文物』122(國立故宮博物院, 1993), p.59).

40 김태은, 앞의 논문, p. 19.

41 고려시대 매병의 기형에 관한 유형분류를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肥塚良三, 앞의 논문(1985); 崔健, 앞의 논문(1996); 李鍾玟, 앞의 논문(2006) 등이 있다. 肥塚良三은 동체 하단의 외반 정도와 장식기법을 주요 기준으로 다섯 유형을 제시하였다. 최건은 철화매병을 대상으로 구연과 기측선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식을 제시하였다. 이종민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매병을 구연·견부·저부의 형태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같은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고려시대 매병의 대표 유형에 관하여 공통된 이해를 보이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유형분류 또한 이와 큰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편년유물이 거의 없고, 유적 출토예들은 기형을 알 수 없는 잔편이 대부분이므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형태를 알 수 있는 유적출토품과 함께 현재 확인 가능한 전세품 약 400여 점을 대상으로, 고려시대 청자매병의 기형에 따른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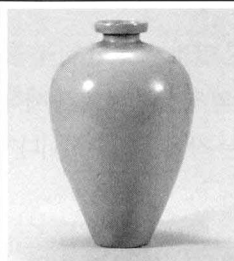



### 1) I유형

등근 어깨에서 저부까지 사선으로 좁아지는 I유형은 세장하거나 팽만한 정도 및 구연형태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표 1).

A형은 높이가 약 20cm 정도로 크기가 작고, 입지름과 밑지름의 폭이 비슷할 정도로 세장하다. 현재까지 문양이 시문된 예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유적에서 거의 출토되지 않고 전세품도 적어 소량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도 3).

B형은 높이가 약 35cm 이상의 대형이며 견부는 팽만하고 저부까지 가파른 사선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무문과 양각장식을 한 예가 있다. A형과 마찬가지로 출토품 및 전세품이 많지 않다. 개성에서 출토된 <청자양각과형용모란문매병>(도 4)은 높이가 37.9cm로 크기가 크고 팽만한 어깨와 가파르게 좁아지는 기측선을 가진다. 동일한 문양이 시문된 매병편이 강진 사당리 요지에서 출토되어 제작지를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표 1 I유형

| A   | B   | C   | D  |
|---|---|---|--|
|  |  |  |  |
| 도 3 <청자매병><br>높이 22.0cm,<br>입지름 5.2cm,<br>밑지름 5.4cm,<br>해강도자미술관                     | 도 3 <청자양각과형용모란문매병><br>높이 37.9cm,<br>입지름 6.1cm,<br>밑지름 11.7cm,<br>개성 출토,<br>국립중앙박물관  | 도 5 <청자철화모란문매병><br>높이 24.3cm,<br>입지름 6.4cm,<br>밑지름 8.7cm,<br>완도 해저 유적 출토            | 도 6 <청자철화모란당초문매병><br>높이 28.2cm,<br>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

<sup>42</sup>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왕실의 도자기』(2008), p. 83.

C형은 크기가 다양하나 대체로 높이가 20~30cm 정도이다. A와 B형보다 측면이 완만히 좁아지는 형태로 대부분의 I유형이 이 형식에 속하며 철화로 장식된 예가 많다. 강진과 부안 및 해남에 위치한 여러 청자요지에서 확인되며, 경기 시흥 건물지<sup>43</sup> 및 완도 해저유적(도 5)<sup>44</sup>을 포함한 여러 소비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D형은 C형과 유사한 기형을 가지나 구연이 수평형을 가진 형태로, 현재까지는 철화매병에 서만 확인된다(도 6). 유적 출토 예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며 전세되는 양도 적다.

## 2) II유형

반구형 구연을 가지는 II유형 매병은 최대동경이 I유형에 비하여 건부 위쪽에 위치하여 평만한 어깨를 가진다. 기측선은 둥근 곡선을 그리며 좁아지다가 동체 중하부에서 부드럽게 꺾이면서 자연스레 저부까지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거나 외반한다. II유형은 건부와 동체 중하부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표 2).

A형은 대체로 30cm를 전후한 크기이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기측선은 동체 하부에서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거나 약하게 외반한다.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를 포함한 강진과 부안의 여러 가마터 및 다양한 소비유적에서 수습된 매병편은 전체 기형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잔존상태로 보아 대다수는 II-A형으로 추정되며 전세량도 많다. 용운리 10호 II층에서 출토된 밑지름이 약 11~13cm 정도 되는 매병 저부편들은 전체 기형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sup>45</sup> 현재 남아있는 형태로 미루어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도 7)과 같은 A형으로 추정된다.

B형은 목 아래에서 수평에 가깝게 넓게 벌어진 어깨와 동체 중하부에서 외반하는 긴 허리를 가지는 형태이다. A형과 비교하여 건부가 풍만하고 기측선이 꺾이는 지점이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여 동체 하부가 길며, 대체로 높이가 40cm 이상으로 크다. 국보 97호 <청자음각연당초문매병><sup>46</sup>과 국보 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도 8)이 B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매병은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 다수 확인되었으며, 용운리와 사당리 등 강진 일부 지역에서도 출토되었다.

<sup>43</sup> 기전문화재연구원, 『始興 去毛洞 建物址』(2004), pp. 78-79, 148.





<sup>44</sup>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莞島海底遺物』(1985).

<sup>45</sup> 국립중앙박물관,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圖版編 -靑磁 9號·10號窯-』(1996), pp. 186-187, 도면 69-1~3.

<sup>46</sup>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08), p. 96.

또한 국내 일부 소비유적과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중국 하북성 원대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도 11).<sup>47</sup>

표 2 II유형

| A   | B   | C   | D  |
|---|---|---|--|
|  |  |  |  |
| <p>도 7 &lt;청자음각연화절지문 매병&gt;, 높이 31.8cm, 입지름 5.7cm, 밑지름 12.7cm, 해강도자미술관</p>        | <p>도 8 &lt;청자상감운학문매병&gt;, 국보 68호, 높이 41.7cm, 입지름 6.1cm, 밑지름 17.1cm, 간송미술관</p>     | <p>도 9 &lt;청자상감운학문매병&gt;, 높이 40.1cm, 입지름 6.5cm, 밑지름 13.5cm, 부안 유천리 요지 수습</p>      | <p>도 10 &lt;청자상감용문매병&gt;, 현재높이 83.0cm, 밑지름 34.0cm, 부안 유천리 요지 수습</p>                |



도 11 <청자상감모란운학문매병>, 높이 46.0cm, 입지름 6.7cm, 밑지름 17.2cm, 중국 河北省 史氏墓群 출토

B형과 마찬가지로 크기가 40cm 전후인 C형은 앞의 두 유형과 비교하여 등근 견부와 크기에 비하여 세장한 하부를 가진다. 부안 유천리에서 출토된 매병 중 C형의 예가 많으며, 음각과 상감기법으로 장식되었다(도 9).

D형은 높이가 80cm 이상이고 입지름은 15cm, 밑지름은 30cm 이상인 대형 매병으로 생산 유적 중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다. 전면을 상감기법으로 장식하였으며 시문된 문양도 龍濤紋으로 한정되어 있다(도 10). 현재까지 소비유적에서 출토되거나 전세되는 예가 거의 알려진 바 없어, 유천리 요지에서 소량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sup>47</sup> 河北省文物研究所, 『石家庄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文物』1996-9(文物出版社, 1996), pp. 47-56; 최건, 『中國元代墓出土 靑磁象嵌牡丹雲鶴文梅瓶』, 『古美術』43(한국고미술협회, 1997), pp. 35-36; 장남원, 『쿠빌라이 칸 시대 여·원(麗元)간 도자수용의 변화』, 『쿠빌라이 칸과 그의 시대』(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8), pp. 98-99.

### 3) Ⅲ유형



Ⅲ유형 매병은 대부분 나팔형 구연을 가지며, 견부는 둥글고 기측선은 강한 곡선을 그리며 동체 하부가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Ⅲ유형 매병은 대부분 상감기법으로 장식되었으며, 고려 후기 관사명 명문이 확인되어 제작연대가 14세기임을 알 수 있다(도 1).<sup>48)</sup> 동체 형태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표 3).

A형은 사선으로 좁아지다가 저부 가까이에서 외반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Ⅲ유형 매병이 이에 해당한다. 견부에 위치한 동체 최대폭이 크지 않으며 동체 하부도 좁아 전체적으로 세장하다(도 12). 강진 가마터에서 수습된 바 있으며,<sup>49)</sup> 소비유적에서도 다수 출토되었다.

B형식은 둥글게 좁아지다가 동체 중하부에서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A형과 비교하여 기측선이 꺾이면서 외반하는 지점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견부가 더욱 둥글게 강조된다(도 13).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고려시대 매병은 구연·견부·저부 및 기측선의 형태에 따라 크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I유형은 둥근 어깨에서 최대로 벌어지며 저부까지 사선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구연은 대부분 반구형으로 일부 수평형도 확인된다. II유형은 팽만하고 벌어진 어깨에서 둥근 곡선을 그리며 좁아지다가 부드럽게 꺾이면서 그대로 저부까지 수직에 가깝게 내려오거나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구연은 대부분 반구형이다. Ⅲ유형은 어깨가 둥글고 기측면이 강한 곡선을 그리며 외반하는 형태로, 대부분 나팔형 구연을 가진다. 이러한 각 유형은 다시 하위속성을 기준으로 세분된다.

표 3 Ⅲ유형

| A  | B  |
|--|--|
|     |      |
| <p>도 12 &lt;청자상감어문매병&gt;,<br/>높이 32.4cm,<br/>입지름 5.8cm,<br/>밑지름 9.8cm,<br/>삼성미술관</p> | <p>도 13 &lt;청자상감용문매병&gt;,<br/>높이 30.4cm,<br/>입지름 4.6cm,<br/>밑지름 9.8cm,<br/>국립중앙박물관</p> |

<sup>48)</sup> 김윤정, 앞의 논문, pp. 160-162.

<sup>49)</sup> 사당리 1·10호에서 수습되었다. 해강도자미술관·전라남도 강진군, 『康津의 靑磁窯址』(1992), pp. 270, 289.

## 2. 장식방법과 표현

문양은 기형과 함께 고려 청자매병의 중요한 조형적 특징으로, 현전하는 매병들을 통해 다채로운 문양이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문양은 제작된 시기에 따라 소재와 기면에 배치되는 형식에서 변화가 확인된다. 그러나 음각의 연화절지문이나 상감 운학문과 같은 일부 문양은 오랫동안 유사한 형식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제작 시기나 지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주문양과 함께 시문되는 보조문양에서도 소재와 형태뿐 아니라 견부와 저부간의 조합 및 주문양과의 결합관계에서 제작시기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 주목된다. 그러므로 고려청자매병의 문양에 대한 깊이 있는 양식적 이해를 위해서는 매병의 중심문양과 보조문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병은 현재까지 80여 곳의 소비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장식기법별 출토비율은 상감이 약 65%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음각이 약 14%를 차지하였다.<sup>50</sup> 또한 약 400여점의 전세품들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상감이 약 42%, 음각이 약 12%를 차지하여 소비유적과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세품과 출토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감 및 음각문양을 중심으로 매병의 장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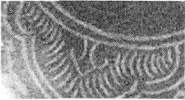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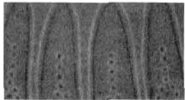
### 1) 상감기법 시문 매병

먼저, 상감매병의 보조문양은 견부와 저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견부에는 선으로만 표현된 여의두문 1형과 내부를 다른 문양으로 채운 여의두문 2형 및 연판문이, 저부는 뇌문과 연판문이

<sup>50</sup> 김태은, 앞의 논문, pp. 3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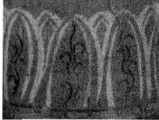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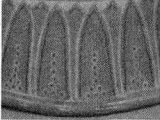


<sup>51</sup> 철화와 철채 또한 고려시대 매병의 주요 장식기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철화는 전세품뿐 아니라 많은 유적에서 상당량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철화매병의 문양은 일부의 전세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당초문 또는 당초문이 소략화된 듯한 절지형태의 식물문양으로, 상감이나 음각문양에 비하여 소재가 한정적이다. 철화매병은 강진과 부안의 일부 요장을 포함한 전국 여러 가마에서 생산되었으며 특히 해남에서 적극적으로 제작되었다. 고려시대 철화기법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철화매병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장남원, 「高麗時代 鐵畫瓷器의 成立과 展開」, 『美術史論壇』 18, (한국미술연구소, 2004), pp. 56-64; 윤용이, 「高麗 鐵畫靑瓷의 起源과 發展」, 『대동문화연구』 32(대동문화연구원, 1997), pp. 69-84; 최건, 앞의 논문(1996), pp. 133-134; 김태은, 앞의 논문, pp. 85-87; 서유리, 「高麗 鐵畫靑瓷의 發生과 特徵」(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pp. 81-86). 한편, 철채매병은 대부분 백상감으로 운학문 또는 식물문을 견부에 시문한 예가 대부분이다. 매병을 포함한 철채청자는 일정량이 전세하는데 비하여 해남 및 강진 일부 유적에서 극소량만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그 제작상황을 알기는 어렵다(김태은, 앞의 논문, pp. 100-103).

표 4 상감매병의 보조문양 종류

| 건부  |   |   | 저부  |  |
|---|---|---|---|--|
|  |  |  |  |  |
| 여의두문 1형   | 여의두문 2형   | 연관문   | 뇌문  | 연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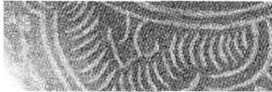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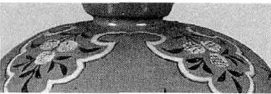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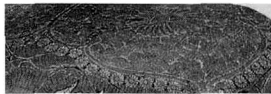
대표적이다(표 4). 저부의 연관문은 세부표현에 따라 연관 위에 구획선이 없는 a형, a형과 유사하며 구획선이 생긴 b형, 이중으로 표현된 선의 폭이 넓어진 c형과 변형된 형태의 d형으로 크게 분류되며, 제작시기에 따라 점차 a형에서 d형으로 변화한다(표 5).

표 5 상감연관문의 형식분류

| a   | b   | c   | d  |
|---|---|---|--|
|  |  |  |  |

연관문은 건부와 저부에 모두 나타나는데, 건부보다는 저부에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저부에 시문될 때에는 주로 뇌문과 함께 표현된다. 여의두문은 여러 기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보조문양으로, 상감매병에는 건부에 시문되고 저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여의두문의 1형과 2형은 크기와 내부를 채우는 형태에 따라 각각 세 가지 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표 6). 여의두문 1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형적인 a형에서 세선표현이 늘어난 b형과 흑백상감으로 표현되는 c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저부 보조문양과의 구성에서 a형은 뇌문과, b·c형은 주로 연관문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의두문 1형의 이러한 특징은 강진의 여러 지역과 부안에서 출토된 유물에서 확인된다. 여의두문 2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의 선으로

표 6 상감여의두문의 형식분류

| 분류 | a   | b   | c  |
|----|---|---|--|
| 1형 |  |  |  |
| 2형 |  |  |  |







연결된 a형에서 각 여의두문이 분리되고 내부 장식이 증가하는 b·c형으로 변화한다. 저부 보조 문양과의 구성은 a형이 주로 이른 시기의 연판문과, b·c형은 보다 이후에 등장하는 연판문과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여의두문 2형은 현재까지 부안 지역에서만 확인되어 주목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고려 상감청자매병의 중심문양과 보조문양의 조합관계에 대해, 다양한 중심문양 중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운학문과 용문이 시문된 매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운학문은 상감청자의 대표적인 문양으로 매병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전세되는 양이 많으며,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매병에 상감장식된 운학문은 구름과 학만으로 표현되는 경우와(도 9, 14, 15, 16, 17), 二重圓圈紋과 함께 시문되는 경우의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도 8, 18). 첫 번째 형식의 운학문은 다른 문양으로 대체된 경우가 보이지 않으나, 두 번째 형식의 운학문은 주 문양소재인 운학이 생략되거나 국화문과 같은 다른 소재로 대체되어 사용된 경우가 확인된다.

다양한 형식과 기형의 운학문매병은 보조문양 구성에 따라 <표 7>과 같이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수의 기타 유형도 확인된다. 보조문양의 제작 중심시기를 통해 운학문매병은 A와 B형에서 C와 D형으로 변화해 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원권운학문매병의 경우 C와 D형만이 확인되고 있어 일반적인 운학문매병에 비하여 늦은 시기에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도 8, 18). 그러므로 구름과 학이 성글게 포치된 운학문이 점차 도식화되면서 기면 전체를 채우

표 7 상감운학문매병의 보조문양 종류와 구성

| 구분       | A   | B   | C   |   | D  |   |
|----------|---|---|---|---|--|---|
| 견부       | 무문  | 여의두문 1형   | 여의두문 2형   |   | 연판문  |   |
| 저부       | 뇌문  | 뇌문  | 연판문 a·b형  |   | 연판문 b·c형   |   |
| 대표<br>유물 |  |  |  |  |  |  |
|          | 도 14<br>〈청자상감운학문매병〉,<br>높이 300cm,<br>일본 오사카시립<br>동양도자미술관                            | 도 15<br>〈청자상감운학문매병〉,<br>높이 390cm,<br>입지름 61cm,<br>밑지름 13.2cm,<br>국립중앙박물관            | 도 16<br>〈청자상감운학문매병〉,<br>높이 33.2cm,<br>입지름 57cm,<br>밑지름 14.0cm,<br>호림박물관             | 도 8<br>〈청자상감운학문매병〉  | 도 17<br>〈청자상감'准'色명운학문매병〉,<br>높이 33.5cm,<br>밑지름 11.0cm,<br>국립중앙박물관                    | 도 18<br>〈청자상감운학문매병〉,<br>높이 31.2cm,<br>입지름 70cm,<br>밑지름 14.5cm,<br>삼성미술관               |

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운학문과는 다른 성격을 보이는 이중원권운학문이 등장하였으며, 이후 운학이 다른 문양소재로도 대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운학문매병은 표 4~6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상감보조문양과 함께 장식되었으나, 현재까지 부안지역에서만 보이는 내부를 채운 여의두문 2형과 함께 장식된 예는 확인되지 않아 흥미롭다.

용문은 고려 후기 대표적인 상감매병의 중심문양이다. 앞서 살펴본 운학문이 고려 중기부터 후기까지 긴 시간 동안 활용되었다면, 용문은 고려 후기 새롭게 상감기법으로 시문되기 시작한 문양이다. 비교적 전세수량이 많으며 문양의 형태도 다양하고, 소비유적에서는 高達寺址에서 출토된 바 있다. 용문은 고려 중기에는 양각매병에 활용되었으나 그 예가 적으며, 시문된 방식도 정형화되어 후기의 상감용문과 비교된다. 상감용문매병은 보조문양의 종류에 의해 크게 두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은 여의두문과 연판문이(도 10), B형은 견부와 저부에 모두 연판문이 등장한다(도 13). 두 형식의 매병은 보조문양의 구성뿐 아니라 주문양이 기면에 시문되는 면적, 기형에 차이를 보이며, 출토되는 생산지역에 있어서도 A형은 부안, B형은 강진으로 다르다.

상감매병의 중심문양은 회화적으로 표현되는 대나무·매화·용 등과 간략화된 도안이 반복적으로 시문되는 국화·운학·이중원권문 등 다양하다. 표현방식 또한 竹鳥紋·竹梅紋·竹柳紋·竹梅鳥紋과 같이 대나무를 중심으로 여러 소재가 첨가되거나 생략되어 전면에 넓게 배치하는 경우, 운학문과 같이 하나의 조합을 이루면서 기면에 동일한 문양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또는 이중원권문이나 菱花紋 등이 기면을 구획하는 형식 등이 있다. 이처럼 중심문양은 다양한 소재가 여러 방식으로 구성되나, 보조문양은 소재가 한정되고 제작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매병을 이해하는 중요한 양식적 기준이 될 수 있다.

## 2) 음각기법 시문 매병

음각기법으로는 기면 전체를 장식하는 당초형과, 동일한 형태의 문양이 두 곳에서 세 곳에 반복되는 절지형의 식물문양이 주로 시문되었다. 보조문양으로는 견부에는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한 적운문과 여의두문이, 저부에는 뇌문과 연판문이 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전세예가 많고 다양한 유적에서 출토되는 蓮花折枝紋을 중심으로 음각매병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연화절지문은 연꽃과 연잎이 상하로 배치된 모습으로, 보조문양으로는 대부분 견부와 저부에 적운문이 함께 나타난다(표 8). 적운문이 시문된 연화절지문은 강진 용운리와 사당리, 부안에서 출토되어 제작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전세품과 소비유적지 출토품 가운데 문양의

형태를 포함하여 세부표현까지 일치되는 예가 많아, 이 문양에 대한 도안 또는 전문적으로 조각하는 장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매병을 포함하여 주로 호·병류에 활용된 연화절지문은 이후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에서 유사하게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52</sup>

한편, 동일 명문이 유천리에서 확인되어 부안 생산품임이 밝혀진 <청자음각'孝文'명연화절지문매병>(도 19)<sup>53</sup>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다른 형태의 연화절지문이 시문되었고, 견부와 저부에도 내부를 꽃으로 채운 여의두문, 연판문이 시문된 것을 볼 수 있다(표 9).

매병의 문양 중 고려, 중국 남북방 요장 및 일본에서도 활용된 음각당초문과 비교하여, 음각 연화절지문은 상감운화문과 함께 고려매병의 특징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연화절지문은 모범이 되는 도안이 존재한 것으

표 8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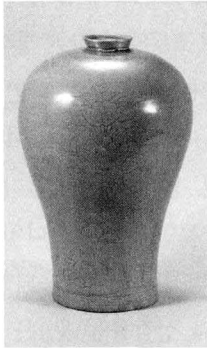



|  |  |   |
|--|--|---|
|  <p>도 7<br/>〈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p> | 주문양  | 보조문양  |
|  |  |  <p>견부</p>  <p>저부</p> |

표 9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   |  |  |
|---|--|--|
|  <p>도 19<br/>〈청자음각'孝文'명연화절지문매병〉, 국보 252호,<br/>높이 27.7cm, 입지름 5.3cm,<br/>밑지름 10.6cm, 삼성미술관</p> | 주문양  | 보조문양   |
|   |  |  <p>견부</p>  <p>저부</p> |

<sup>52</sup> 구완동 요지에서는 중심문양이 흐트러지고 견부의 적운문이 생략된 형태의 음각연화문매병편이 출토되었다. 해강도 자미술관·대전광역시, 『大田 舊完洞 窯址-어청골 靑磁窯址·瓦窯址 發掘調査 報告書』(2001), p. 103, 도면 24 ②-⑤.

<sup>53</sup> 정양모, 『高麗陶器銘文의 性格』, 『高麗陶器銘文』(국립중앙박물관, 1992), p. 145.

로 생각되며, 강진을 중심으로 다수 생산되었다. 또한 유천리 요장의 경우 이러한 연화절지문과 함께 새로운 형식의 문양도 제작하여 부안만의 독자적인 양식도 확인된다.

## IV. 고려시대 매병의 양식변천

이 장에서는 앞서의 양식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려시대 매병의 제작양상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편년유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적출토품을 중심으로 양식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청자매병의 변화과정은 크게 I기와 II기의 두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고려매병은 I기인 11세기 말에서 13세기까지 오랫동안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며 제작되었다. 그러나 II기인 14세기에 들어와 기존의 전통이 약화되고, 이전시기와는 양식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기형과 새로운 문양소재가 등장한다. 각 시기는 다시 동일한 양상 안에서 새로 추가되는 요소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1. I기 : 11세기 말~13세기

#### 1) I-1기 : 11세기 말~12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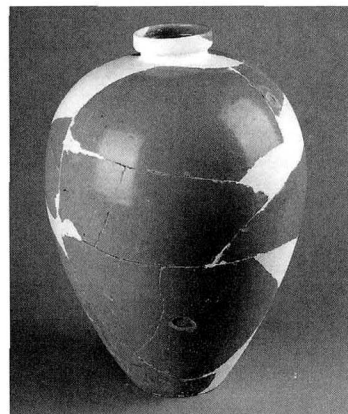
무문 혹은 철화장식이 있으며 기층선이 사선으로 좁아드는 I유형 매병이 초기유형이라 생각되며 이는 현재 학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조형의 시원 및 제작 개시시점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까지 I유형 매병의 기형적 연원에 대해서는 크게 반구형 구연과 테쌓기 제작방법 등을 근거로 통일신라 후기의 경질도기편병을 연원으로 보는 견해와,<sup>54</sup>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55</sup>

<sup>54</sup> 최건, 앞의 논문(1990), pp. 21-27; 同著, 「라말여초 한국 자요(磁窯)의 계열과 변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p. 67-71.

<sup>55</sup> 정신옥, 임진아 등은 고려매병과 중국 淸涼寺窯·張公巷窯·老虎洞窯 출토 청자매병과의 조형적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송대 汝窯와의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정신옥, 「高麗 前半期 瓷器에 나타난 中國 北方 陶瓷의 影響」(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pp. 91-92; 임진아,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磁器의 影響」(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pp. 94-95). 이종민도 중국 여러 요장출토품과 비교하여 초기에 등장하는 고려 매병은 중국양식이 그대로 적용된 형태로 이해하였다(이종민, 앞의 논문(2006), pp. 182-184).

일단 전자의 논의와 같이 고려시대 청자매병이 이전 시대의 경질도기병을 계승했다면, 통일신라도기가 자기로 변안되어 나타난 청자편병이나 마름모 형태의 청자유병과 같이 고려자기 제작 초기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매병은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시대 전기 유적에서 출토된 바 없다.

한편, 후자의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듯이 최근 발굴 조사된 여러 요송대 요지에서 고려매병과의 영향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주목되는 예로 淸涼寺窯址에서 출토된 반구형 구연과 팽만한 동체, 사선으로 좁아지는 저부를 가진 <청자매병>(도 20)이 있다.<sup>56</sup> 11세기 말~12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매병<sup>57</sup>



도 20 <청자매병>, 송, 높이 39.6cm, 입지름 7.0cm, 밑지름 9.8cm, 중국 河南省 淸涼寺窯址 출토

은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청자매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매병> 등 I-B 유형과 형태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I유형 매병이 확인되는 요장은 浙江省 杭州 老虎洞窯址,<sup>58</sup> 河北省 觀台窯址,<sup>59</sup> 江西省 景德鎮 湖田窯址<sup>60</sup> 등으로, 대부분 북송 초기~중기 이후 층위에서부터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고려매병은 12세기 초를 전후하여 외부 영향 아래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매병이 출토되는 이른 시기 유적으로는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와 완도 해저유적이 대표적이는데,<sup>61</sup> 두 곳에서 모두 I-C유형에 해당하는 철화매병이 출토되었다.<sup>62</sup> 유적출토 예가 거의 없는 무문의 I

<sup>56</sup> 淸涼寺窯址에서는 전세 汝窯자기와 비슷한 기형과 질을 가진 청자가 출토되어 汝窯系 요장임이 확인되었다. 河南省 文物考古研究所, 『寶豐淸涼寺汝窯』(文物出版社, 2008).

<sup>57</sup> 청량사요지에서 매병을 제작한 시기는 天靑釉 자기를 생산한 성숙기 단계로 宋 神宗 元豐年間(1078-1085)에서 徽宗 전기, 즉 12세기 초로 추정된다. 河南省 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보고서, pp. 20-22.

<sup>58</sup> 南宋 修內寺官窯로 추정되는 노호동요지에서는 南宋初 층위로 추정되는 H2·H3 폐기퇴적구덩이에서 다수의 청자 매병 및 매병뚜껑이 출토되었다. 杭州市 文物考古所, 『杭州老虎洞南宋官窯址』, 『文物』2002-10(文物出版社, 2002), pp. 23-29.

<sup>59</sup> 五代 후기에서 원대까지 긴 시간 동안 운영된 磁州窯系 관태요지에서는 북송 중기 이후 층위에서부터 매병이 확인된다. 北京大學 考古學系·河北省 文物研究所·邯鄲市 地域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文物出版社, 1997), pp. 462-513.

<sup>60</sup> 五代부터 16세기 중반 이후까지 운영되었던 景德鎮系 호전요지에서는 북송 이른 시기부터 반구형 구연을 가진 매병이 확인되었다. 江西省 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 民窯博物館 編著, 『景德鎮湖田窯址: 1988-1999年 考古發掘報告』上(文物出版社, 2007), pp. 447-464.

<sup>61</sup> 목포대학교박물관, 『海南 珍山 里 綠靑磁窯址』(199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1985).

<sup>62</sup> 유사한 양식의 유물이 출토되어 동시기 유적으로 생각되는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와 완도 해저유적은 최근의 연구를

-A·B유형은 분명한 제작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중국식 매병과 조형적으로 거의 동일하고 소량으로 제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해남지역에서 제작된 I-C유형보다 이른 12세기 초를 전후로 한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전세품(도 3)으로 미루어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청자에 적용되는 시점, 특히 중국 북방지역 자기의 영향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강진에서 매병도 함께 등장하였다고 생각된다.<sup>63</sup>

## 2) I-2기 : 12세기 전반~13세기 전반

12세기 전반에 이르면 매병은 생산량과 종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강진 용운리 10-II층에서 새롭게 등장한 매병은 II층 출토 병류의 45%를 점유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으며, I-1기에 등장하는 유형과 함께 동체 하부가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외반하는 새로운 기형이 제작되고 음각·양각·상감기법으로 당초문·연화절지문·능화문·뇌문·여의두문이 다채롭게 장식되었다.<sup>64</sup> 강진 용운리·계율리·사당리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 중기 요장에서 여러 종류의 매병편이 수습된 사실이 이러한 생산양상을 뒷받침한다.<sup>65</sup>

강진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매병이 생산되고, 그 영향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시기인 12세기 중반 이후에는 부안, 경기, 충청지역 등의 요장에서도 매병제작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로 편년되는 부안 진서리·유천리 일부 요장과 용인 보정리 요지, 대전 구원동 요지, 음성 생리 요지에서 용운리 10-II층 출토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문양 소재와 기형적 특징을 공유하는 매병이 출토되었다.<sup>66</sup>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분묘유적에서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통하여 퇴화해무리굽안이 소멸되는 시점인 11세기 후반-12세기 중반 사이의 시기에 운영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애경, 「완도 해저출토 청자의 특징과 생산시기」, 『해양문화재』1(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pp. 30-33; 장남원, 「완도선 인양 철화청자의 특징과 제작시기」, 『해양문화재』1(2008), pp. 66-69.

<sup>63</sup> 정신욱, 앞의 논문(2004), pp. 134-139; 이종민, 앞의 논문(2006), p. 184.

<sup>64</sup> 국립중앙박물관,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本文編-靑磁 9號·10號窯-』(1997), p. 184.

<sup>65</sup> 1992년의 강진 지표조사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제시한 유형 중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제Ⅲ·Ⅳ유형에 속하는 요지에서 음각연화절지문·음각연판문·상감은화문·상감능화창문·상감여의두문·상감뇌문·철체 등이 장식된 매병편이 수습되었다. 해강도자미술관·전라남도 강진군, 앞의 보고서(1992); 김태은, 앞의 논문, pp. 27-28 <표 2> 참고.

<sup>66</sup>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扶安 鎮西里 靑瓷窯址-第18號 窯址發掘』(2001); 원광대학교박물관,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200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扶安 柳川·鎮西里 靑瓷窯址 調査報告書』(199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扶安 柳川里 窯 高麗陶器』(1983); 기전문화재단연구원·한국토지공사,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본문·도면>』(2006); 해강도자미술관·대전광역시, 앞의 보고서(2001); 충북대학교박물관, 『陰城 笠里 청자가마터』(2002).

매병의 출토예가 적지 않은데, 이를 통해 고려 중기 지방요장에서 제작된 매병의 조형적 특징과 그 소비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67</sup> 12세기 전반부터 등장하는 양식적 특징은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출토품과 석릉, 곤릉 출토품을 통하여 13세기 전반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8</sup>

한편 부안 유천리에서는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전반 사이의 어느 시점부터 강진과는 차별되는 형태와 장식을 가진 매병을 만들기 시작한다. 음각의 보상화당초문이나 연화절지문(도 19), 음각이나 상감으로 시문되는 내부를 꽃 등의 문양으로 채운 여의두문 2형은 강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부안만의 특징적인 매병문양으로 해석된다.<sup>69</sup>

### 3) I-3기 : 13세기 중반~13세기 후반

고려 중기에 확립된 고려매병의 제작양식은 13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중심시기가 13세기인 일본 鎌倉나 京都 유적에서 다수 확인되는 음각연화절지문매병과 운학문매병을 통해 알 수 있다.<sup>70</sup> 13세기 중반부터 후반에는 기형 면에서 동체 견부가 이전 시기보다 더욱 팽만해지는 II-C유형(도 9), 동체 높이가 약 1m에 달하는 II-D유형(도 10) 등, 장식 면에서는 상감의 이중원 권문, 도안화된 국화·모란문, 견부의 연판문 등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된다. 13세기 중반 이후 운영된 선원사지<sup>71</sup>·수정사지<sup>72</sup> 등의 유적 출토품과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에 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하북성 출토품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도 11).

<sup>67</sup> 고려중기 강진과 부안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된 매병이 출토된 대표적인 분묘유적으로는 동해 삼화동·성남 판교지구·용인 좌항리·공주 금학동·충주 단월동 유적 등 다수의 예가 있다. 이종민, 앞의 논문, pp.172-175; 김태은, 앞의 논문, pp. 37-43.

<sup>68</sup> 국립해양유물전시관, 『保寧 元山島 : 水中發掘調査 報告書』(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江華碩陵』(2003); 同著, 『江華高麗王陵』(2007).

<sup>69</sup> 현재까지 부안지역 요장의 개시시기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구일회는 강진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12세기를 전후로 한 시점에 부안에서 요업이 시작되었을 것이라 제시하였다. 한정화, 『扶安 柳川里出土 高麗靑瓷의 研究』(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김영원, 『高麗時代 扶安 靑磁의 연구』, 『美術史論壇』22(한국미술연구소, 2006); 구일회, 『扶安郡 柳川里 高麗陶磁 研究』, 『美術史論壇』25(한국미술연구소, 2007).

<sup>70</sup> 한성욱, 『日本 鎌倉出土 高麗靑瓷의 研究』, 『東亞文化』1(東亞文化研究院, 2005); 同著, 『日本 京都 出土 高麗靑瓷의 現況과 性格』, 『한국중세사연구』25(한국중세사학회, 2008).

<sup>71</sup> 동국대학교교박물관·강화군, 『史蹟259號 江華 禪源寺址 發掘調査報告書Ⅱ(圖版)』(2003).

<sup>72</sup> 제주대학교교박물관, 『水精寺址』(2000).

## 2. II기 : 14세기

### 1) II-1기 : 14세기 전반

고려후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제작 초기단계부터 13세기까지 고수되던 전통적 양식이 약화되고, 새로운 형식의 매병이 제작된다. 나팔형 구연에 곡선이 강조된 III유형이 새롭게 등장하고 선호하는 중심문양이 용문·연류문으로 변화하며 견부와 저부에는 모두 연판문이 장식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매병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기보다는 양식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元의 영향 때문으로 이해되며 이전시기와는 조형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매병이 제작된다.<sup>73</sup> 1345년에 제작된 <청자상감'乙酉司醞罍'명류로문매병>(도 1)은 이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2) II-2기 : 14세기 후반

II-2기인 14세기 후반에 이르면 14세기 전반에 등장한 기형이 계속 제작되나 중심문양, 보조문양의 종류가 다양하여 일정한 형식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시기까지 고수되던 기면구성, 즉 주문양과 견부 및 저부 보조문양대의 3단 구성이 변형되어 여러 단의 보조문양대가 구획되는 경향을 보인다. 관악사지·구룡사지·수원사지·미륵사지 등 다양한 사찰유적에서 출토되었다.<sup>74</sup>

## V. 맺음말

이상으로 문헌기록과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매병의 용어와 용례 및 양식적 특징

<sup>73</sup> 김윤정은 고려 후기 상감매병과 원대 청화자기 용문양의 유사함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14세기 전반 고려에 원의 양식이 유입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김윤정, 「高麗後期에서 朝鮮初期 象嵌靑磁에 나타난 元代 磁器의 影響」(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pp. 52-55.

<sup>74</sup>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果川 冠岳山 冠岳·逸名寺址 試掘 및 發掘調査報告書』(2000); 공주대학교박물관·공주시, 『九龍寺址』(1995); 同著, 『水源寺址』(199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1996).

과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에는 매병의 용도에 대해 많은 수의 전세품과 고분출토품을 근거로 주로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여 왔으나, 새롭게 확인된 기록과 자료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술을 담았던 음용기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원 황실에 대한 공물에 포함되거나 고려 왕실 연회 및 사신접대용 음용기, 의례용 제기, 花器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여러 계층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려시대에 매병에 대해서는 ‘樽(尊)’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송대에 이미 ‘梅瓶’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여 청대 초에는 오늘날의 매병과 같은 기형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매병은 다양한 양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고려 중기 이후 조선 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매병을 몇 개의 유형만으로 분류하여 다루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및 세부적인 특징과 차이를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매병의 양식적 특징을 형태와 장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형태면에서는 제작시기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되고, 각각은 다시 상대적 선후관계와 지역차가 드러나는 하위속성으로 세분됨을 알 수 있었다. 장식면에서는 기법별 중심문양과 보조문양의 소재별 특징 및 기면의 구성방식, 문양 간의 조합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작시기별로 주문양과 보조문양 소재 및 세부표현이 변화하고 지역별로 주로 시문되는 보조문양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고려시대 매병은 12세기를 전후하여 중국의 영향 아래 제작되기 시작하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려만의 조형이 성립되었고, 13세기 말까지 오랫동안 양식적 특징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에서 제작된 매병은 강진 생산품으로 대표되는 공통의 조형적 특징을 공유하는 한편, 부안과 해남지역은 독자적인 형태와 장식을 발전시켜나간 것이 확인되었다. 오랜 시간 지속되던 고려 중기의 매병양식은 14세기를 전후하여 기형과 장식면에서 모두 새로운 조형으로 변화하여 이후 조선 초까지 지속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매병은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조형적 특징과 전개과정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기록에 나타나는 음용기 용어와 용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고찰, 고려청자의 다른 기종 및 중국매병과의 실질적 비교분석, 장식기법별·문양소재별 고찰 등을 상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고려매병의 공예적 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 \_ 梅瓶(*meiping*), 樽(*Jun*), 東國李相國集(*Tonggukisanggukchip*), 萬壽盛典初集(First Anthology on the Grand Occasion of the Imperial Birthday), 象嵌雲鶴紋(*inlaid clouds and cranes design*), 陰刻蓮花折枝紋(*incised lotus design*)

■ 투고일 2010년 8월 25일 | 심사개시일 201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2010년 10월 25일 ■

## 참고문헌

### 1. 사료 및 문집

-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萬壽盛典初集』  
『飲流齋說瓷』  
『陶雅』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 2. 단행본

-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윤용이, 『韓國陶瓷史研究』, 문예출판사, 1993.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2006.  
정양모, 『韓國의 陶磁器』, 문예출판사, 1991.  
路菁, 『遼代陶瓷』, 遼寧畫報出版社, 2003.  
熊寥 主編, 熊微 助理, 『中國陶瓷古籍集成—註釋本』,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中國古陶瓷研究会 編, 『中國古陶瓷研究』6, 紫禁城出版社, 2000.

### 3. 도록

- 강진청자박물관, 『강진 고려청자 500년』, 2006.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고려청자 다시 찾은 비취색의 꿈』, 2006.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陶瓷銘文』, 1992.  
\_\_\_\_\_, 『고려 왕실의 도자기』, 2008.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高麗陶瓷』, 1981.

\_\_\_\_\_『扶安柳川里窯 高麗陶磁』, 1983.  
 한국민족미술연구소, 『潤松文華』31 陶藝Ⅵ 青磁, 1986.  
 호림박물관,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青磁Ⅰ』, 1991.  
 \_\_\_\_\_,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青磁Ⅱ』, 1992.  
 \_\_\_\_\_,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青磁Ⅲ』, 1996.  
 호암미술관, 『湖巖美術館名品圖錄Ⅰ』, 1996.  
 河北省文物研究所編, 『宣化遼墓壁畫』, 文物出版社, 2001.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高麗梅瓶展』, 1985.  
 東京大學出版會, 『韓國美術蒐選—高麗陶磁』, 1978.

#### 4.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江華碩陵』, 2003.  
 \_\_\_\_\_, 『江華 高麗王陵』, 2007.  
 국립중앙박물관,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 1996.  
 \_\_\_\_\_,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本文編』, 199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莞島海底遺物』, 198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保寧 元山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2007.  
 목포대학교박물관, 『海南 珍山里 綠靑磁窯址』, 199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扶安 柳川·鎮西里 靑瓷窯址 調査報告書』, 1994.  
 원광대학교박물관,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 2001.  
 해강도자미술관·전라남도 강진군, 『康津의 靑磁窯址』, 1992.  
 해강도자미술관·대전광역시, 『大田 舊完洞 窯址—어청골 靑磁窯址·瓦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2001.  
 北京大學考古學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域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 文物出版社, 1997.  
 河北省文物研究所, 『石家庄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文物』1996-9, 文物出版社, 1996.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文物出版社, 2008.  
 杭州市文物考古所, 『杭州老虎洞南宋官窯址』, 『文物』2002-10, 文物出版社, 2002.

#### 5. 논문

강순천, 「高麗時代 靑磁梅瓶의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_\_\_\_\_, 「梅瓶의 用途와 形式에 관한 小考」, 『陶藝研究』16,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1994.  
 구일희, 「扶安柳川里 高麗陶磁 研究」, 『美術史論壇』25, 한국미술연구소, 2007.

- 김애경, 「완도 해저출토 청자의 특징과 생산시기」, 『해양문화재』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 김영원, 「高麗時代 扶安 靑磁의 연구」, 『美術史論壇』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 김윤정, 「고려말 · 조선초 官司銘梅瓶의 製作時期와 性格」, 『丹豪文化研究』8-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4.
- \_\_\_\_\_, 「高麗後期 象嵌靑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영향」, 『美術史學研究』249, 한국미술사학회, 2006.
- 박정민, 「14世紀前半 高麗象嵌靑瓷梅瓶의 새로운 變化」, 『美術史學』21,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 윤용이, 「高麗 鐵畫靑瓷의 起源과 發展」, 『대동문화연구』32, 대동문화연구원, 1997.
- 이종민, 「고려시대 청자 梅瓶 연구」, 『講座美術史』27,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 장남원, 「高麗時代 鐵畫瓷器의 成立과 展開」, 『美術史論壇』18, 한국미술연구소, 2004.
- \_\_\_\_\_, 「쿠빌라이 칸 시대 여 · 원(麗元)간 도자수용의 변화」, 『쿠빌라이 칸과 그의 시대』,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8.
- 정신옥, 「高麗 前半期 瓷器에 나타난 中國 北方 陶磁의 影響」,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 최 건,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傳統繼承과 中國陶磁文化의 受容에 관하여」, 『韓國磁器發生에 관한 諸問題』, 第1回東垣記念學術大會發表要旨, 1990.
- \_\_\_\_\_, 「鐵畫靑磁의 特徵과 展開」,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靑磁 Ⅲ』, 호림박물관, 1996.
- \_\_\_\_\_, 「中國元代墓出土 靑磁象嵌牡丹雲鶴文梅瓶」, 『古美術』43, 한국고미술협회, 1997.
- 한성옥, 「日本 鎌倉出土 高麗靑瓷의 研究」, 『東亞文化』1, 동아문화연구원, 2005.
- \_\_\_\_\_, 「新安船 出土 高麗靑瓷의 性格」,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 한정화, 「扶安 柳川里出土 高麗靑瓷의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 廖寶秀, 「梅瓶略史」, 『月刊故宮文物』122, 國立故宮博物院, 1993.
- 孙 机, 「唐李壽石槲綫刻〈侍女圖〉, 〈樂舞圖〉散記(上)」, 『文物』1996-5, 文物出版社, 1996.
- 肥塚良三, 「高麗の梅瓶」, 『高麗梅瓶展』,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85.

## 국문초록

梅瓶은 중세시대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대형 용기로, 고려매병은 중국·일본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특유의 조형으로 당대부터 애호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조선 초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매병은 중국매병뿐 아니라 고려청자의 다른 기종들과도 구분되는 독자적 양식을 성립하며 전개되었다. 때문에 고려시대 매병은 도자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관련 기록과 출토유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전세품을 비롯하여 새롭게 확인된 기록과 축적된 국내외 발굴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매병의 용어·용례를 폭넓게 살피는 한편 고려매병의 조형적 특징과 변천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오늘날 매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긴 동체와 작은 입을 특징으로 하는 기형을 지칭하는 ‘梅瓶’이라는 용어는 『萬壽盛典初集』 등의 기록을 통해 18세기 초 중국에서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의 경우는 『高麗史』와 『東國李相國集』 등을 검토한 결과, 매병을 지칭할 때 ‘樽(尊)’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과 함께 당대의 여러 회화 및 명문자료를 통해 매병은 일상생활에서 술을 담았던 음용기였음이 확인되고, 더불어 원 황실에 대한 공물, 고려 왕실 연회 및 사신 접대용 음용기, 의례용 제기, 花器 등으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형태와 장식의 측면에서 고찰한 매병의 양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고려매병은 구연·견부·저부 및 기측선의 형태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세부적인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는 결국 생산시기와 제작지역별 양식적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장식면에서는 기법별로 중심문양과 보조문양의 소재별 특징과 함께 기면에 구성되는 방식 및 문양 간의 조합관계를 살펴본 결과, 제작시기별로 주문양과 보조문양 소재 및 세부표현이 변화하고 지역별로 주로 시문되는 보조문양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양식에 대한 분석과 유적출토품을 통하여, 고려 중기 중국의 영향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매병은 단시간 내에 고려만의 조형을 형성하여, 13세기 말까지 오랫동안 양식적 특징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2세기 중반~13세기 후반에는 전국에서 공통된 유형의 매병이 제작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켰다. 고려 후기가 되면 매병은 기형과 장식 면에서 전혀 새로운 조형으로 변화하여 조선 초까지 지속된다.

이처럼 단일한 기종을 통해 고려시대 기명의 구체적 사용예가 확인되고, 일련의 긴 시간 속에서 전개된 고려청자의 시기별, 지역별 양식적 특징과 변천과정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매병은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 Abstract

# The Uses and Visual Characteristics of Goryeo Maebyeong

Kim Tae-eun\*

*Maebyeong* (*meiping* in Chinese) are large vases that were popularly produced in East Asia, in medieval times. The distinctive local style *Maebyeong* appeared during the mid-Goryeo period and were produced continuously until the early Joseon era. Goryeo *maebyeong* had a style that set them clearly apart from their Chinese. Although constituting an important area in the history of Korean ceramics,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us far on the topic of Goryeo *maebyeong*, due mostly to the scarcity of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related to these works. This paper discusses the much-debated topic of terms designating parts of *maebyeong* and their intended uses, based on a close analysis of surviving vases of this type, newly-discovered historical records, and the available body of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Korea and abroad. Understanding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Goryeo *maebyeong* and how they changed over time is another important goal of this paper.

According to records like *Wanshoushengdian chuji* (the First Edition of the Grand Occasion of the Imperial Birthday), the term of *maebyeong* as we know of them today, in other words, tall vases with a small mouth, first appeared in China,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Meanwhile, according to Goryeo records such as *Goryeosa*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and *Donggukisanggukjip* (Collected Works of Minister Yi Gyu-bo), *maebyeong* were mainly referred to as "*Jun*." The examination of paintings and painting inscriptions from this period, along with the above records, indicates that *maebyeong* was an everyday ware used to store wine or liquor. *maebyeong* also appear to have been offered as a tributary gift to the Yuan imperial house and used in banquets held at Goryeo's royal palaces and in receptions for foreign envoys. They were also used in rituals and as flower vases.

---

\* Curator at the Gyeonggi Ceramic Museum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maebyeong* in terms of shape and decoration are as follows: Goryeo *maebyeong*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mouth, shoulders and the base section and the contour line; which also reflect stylistic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periods of time and places of production. In terms of decoration, the examination of motifs used in the main and secondary designs, their distribution and combination revealed that both the motifs and techniques varied according to the period and that there were also regional differences in types of secondary design used. The stylistic analysis and the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finds also suggested that Goryeo *maebyeong*, after the start of production in the mid-Goryeo period under Chinese influence, soon acquired their own distinctive appearance which, thereafter, remained unchanged for a long time, until the late thirteenth century. In the mid-twelfth to thirteenth century, *maebyeong* of similar style were produced across the country. But, original regional styles appeared as well during this period. *Maebyeong* underwent extensive changes toward the late Goryeo period, both in terms of shape and decoration, and *maebyeong* of late Goryeo style were produced until the early Joseon.

Goryeo's *maebyeong* pottery hold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Korean art history insofar as it is a type of pottery vessel whose Goryeo-era name and exact uses are established and which helps cast new light on how Goryeo celadons changed over time and varied depending on the region.